

## 데스크 시각

김미은  
문화부장

## 황재형과 최민식

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려진 굵은 주름살과 굳게 다문 입술, 까칠한 수염.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눈망울은 좀처럼 잊히지 않습니다.

이 그림 옆에는 항상 안쓰럽게 아들,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그린 대형 작품 '존엄의 자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모델은 가장 많이 고생한 화가의 큰어머니라고 통행한 후배가 알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모델은 누군가 궁금하던 차 한 남자가 도록을 들고 그림을 체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계자인 듯 싶어 사진 속 모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 '소년'과 '아버지'

태백의 광부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평생 석탄을 캐다가 진폐증을 앓아 시한부 인생을 풀보받은 늙은 광부였습니다. 저 광부의 얼굴에 세상 아버지들의 얼굴이 모두 담겨 있어 화가가 모델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대답해 줄 힘은 당시 한 살 짜리 '화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진작가인 그는 이번 전시 도록에 실린 사진을 활용했고, 작품을 보며 도록 상태를 점검하는 중이었죠.

아들은 이 그림을 제작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신 역시 요즘의 아들, 딸처럼 아버

지와 깊이 소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화가로서의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는 운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에 사람들은 오래 머물다 가는 건 화가의 아들과 조금은 비슷한 마음을 갖기 때문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가 중앙대 3학년 때 그린 '황지 330'도 인상적입니다. 1980년 황지단광 갱도 매몰 사고로 사망한 김봉춘씨의 작업복을 극사실주의로 그린 작품입니다. 혜진 쟁방을 메리아스와 '황지 330'이라고 적힌 명찰이 선명합니다.

그밖에 전시회를 기획한 변길현 학예사가

"나는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과장의 수사인 줄만 알았다. 황재형의 그림을

보기까진 말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작품

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날은 화가의 오래된 꿈을 자처한 장사

의식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처음 화가의 그

림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는 그는 화가를 '태

백산에 사는 커다란 호랑이'로 소개하더군

요. 그가 부르는 절절한 '봄날은 간다'를 들

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호사도 누렸습니다.

다음날 만난 건 '소년'과 '노인'들이었습

니다.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열리는 '소년시

대'(12월 11일까지) 전은 50년간 인간을 찍

아온 '길 위의 작가' 최민식의 작품을 만나

는 전시입니다. 1960~90년대 사진들로 주

억에, 회한에 젖게 하는 작품들입니다.

백화점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인 터라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사진 속 '어린이'들에 대해 이것 저것 물으며 재잘대더군요. 전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이와 동행했는데 그는 "마음이 아리면서도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 눈물나는 그림과 사진

황재형과 최민식. 두 사람 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힌 작가들입니다. 가난한 우리 이웃이 그들의 작품 소재였고, 그 사람들에게

서 희망을 봤습니다. 우연찮게도 두 사람은 '소년'과 '노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가는 개막식 인사에서, 사진작가는 올해 2월

세상을 떠나기 전 준비한 전시회 서문에서.

어쩌면 그렇지 않아도 과파한 시절에 이런 그림과 사진을 권하느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시회장에 들어서면 가슴을 건드리는 작은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오늘 문화면에 최민식 선생의 사진 작품들이 실렸네요. 글을 쓰면서 이 지역에 제 글 대신 황재형의 '아버지의 존재'를 살피다면 구구절절 글이 필요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전시회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mekim@kwangju.co.kr

며칠 전 화가와 인터뷰를 하고 돌아온 후 배 기차가 그림 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본 초상화의 눈동자에 가슴이 둘렀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기사에서도 인상적인 대목이 많아 꼭 한번 가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린 '광부화' 황재형(61)의 전시 '삶의 주름, 땀의 무게'(12월 1일까지) 개막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가 '길에 쓰러져도 누군가 집에 데려다 줄 것 같다'고 이야기한 고향에서 35년 만에 여는 전시였습니다. 스물 일곱 아내, 한 살 짜리 아들과 함께 강원도 태백 탄광으로 떠난 게 1981년, 서른 한 살이었습니다.

전시회장에서 후배가 말한 그림 '아버지의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많은 이들의 발길이 가장 오래 머무른 곳 바로 그 작품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사진인가 싶

## 온펜칼럼

임명재  
약사

##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충분히 관객을 올라攀升 수 있음을 보여준 '더 테레 라이브' 같은 심심할 것 같았는데 막상 관람해보니 소름끼치도록 실감났던 '숨바꼭질' 그리고 설국열차, 감시자들, 화이 등등.

이들 한국 영화 대부분이 적은 예산이지만 다양한 콘텐츠와 빠른 전개 그리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유머들이 관객들을 하여금 영화관을 찾게 하고 한국 영화를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과거 홍콩영화 바람이 불때는 항상 같은 형식의 줄거리 전개에 지루하고, 슬픈 멜로들로 이 한번 허트치면 비슷한 제목이 꼬리를 물고 개봉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영화인들의 생각이 달라지 너무 달라진 게 맞다. 성공한 영화와 다른 것을 하려하면 주제에서 벗어난 것 같아 불안해서 못하고, 제작자들도 그런 흐름에 편향해서 쉽게 이익을 내려하고, 몇몇 주인공이 관객을 독차지했던 그런 시기를 돌이켜 보면, 몇 건의 큰 성공이 있었지만 결국은 편협되고 일관된 생각들이 오랫동안 한국 영화의 침체를 불러왔음을 기억하게 한다.

영화계만 보더라도 관객들이 상당하지 못한 그러한 주제와 편집으로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하면 관객들은 어느 특정한 주제만

을 편식하지 않고 그 영화 스스로 갖추고 있는 그 맛을 음미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미한 생명체에서부터 거대한 고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각각의 생활방식으로 자연이 제공하는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가장 건강하다.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교란하게 되면 순간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파괴되고 썩게 되고 결국 거대한 자연이 이를 되돌리고 만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을 둘러보면 누군가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편을 가르고 있음이 의심의 단계를 넘어 확실해져가고 있다. 사고방식이 다양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하게 한다. 지구상에는 이미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자신들만의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크게 구분되는 틀 안에서도 개인의 삶은 별 차이가 없게 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며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이미

온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기고

이금태  
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자신의 키를 낮춘 선생님

'학생이 교사를 존경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한국의 경우 11% 그쳤는데, 중국은 75%로 1위를 차지했으며, 터키(52%), 싱가포르(47%)가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0월7일 지디넷코리아)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능력에 달렸기에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선진 교육을 앞당기는 일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외연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한다는 응답률이 11%로 21개국 중 끝이 데다, 교사의 학업 수행에 대한 신뢰도 역시 평균점수를 밟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원인은 올바른 사람을 기르는 전인교육의 장(場)이어야 하고 따뜻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어야 할 학교가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하면서 부터이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학교교육은 물론 사교육도 받아야만 유리한 위치에서 서게 되는 근본적인 모순에 따른 부작용 때문입니다. 즉, 입시 준비에 관한 정보나 또 다른 경쟁력을 확보하는 학원이 더 앞선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선생님들의 관심과 말씀을 우습게

받아들이는 잘못된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하려면 공교육 살리기를 우선해야 하겠지만 교사 개인이 교단생활을 되돌아보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고민과 상처를 얼마나 위로하고 보듬어주었는지, 학교폭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얼마나 많이 배려해 주었는지를 되돌아 봐야한다.

교사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한 번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 오랜 역사와 국보급에 가까운 예술품으로 세계적인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그곳이다.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미국인에게 있어서도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박물관에서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관객 중 키 큰 중년의 신사 한 분이 그림 앞에만 가면 무릎을 구부려 키를 낮춘 자세로 그림을 올려다보며 감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객들이 감상법이 이상해 그에게 다가가서 "왜 그렇게 감상하십니까?"하고 물었더니 그는 "저는 교사인데 며칠 뒤에 아이들과 함께 이곳으로 학습

을 것입니다. 학생들 눈높이에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로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림을 바라보는 높이에서 제대로 그림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하더라니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 해서 먼저 와서 그들의 눈높이로 그림을 바라보는 선생님이야말로 진정 어린이 세계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참된 선생님이 아닐까? 순진하고 세상을 아직 모르는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경험이 다양한 어른들이 바라보는 세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친구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학교폭력이나 소위 '왕따'로 대변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지만 어른의 사고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을 보는 눈높이가 있기 때문이다.

'뭘 모르고 나만 혼내는 엄마', '말도 통하지 않는 아빠',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으로 자꾸만 그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디정한 부모님, 그리고 친절한 선생님으로 먼저 그들의 눈높이로 낮추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

▲ 윤병양·광주시 동구 소태동

## 교복치마까지 하의 실종... 교칙으로 규제했으면

부부동반 계모임에서 이런 저런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던 중 재미있는 화젯거리가 올라와서 한동안 설왕설래했다. 말이 재미있는 화젯거리였지만 사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로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리고 그나 놔둬야 할지 아니면 아이와 싸워가면서 항상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소위, 하의 실종 패션.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치마를 짧게 줄이는 게 대세다. 아이들은 교복 치마를 짧게 입는 것이 유행이고 예쁘기 때문에 짧게 줄여 입고다닌다고 말한다. 학부모들은 치마든 반바지든 허벅지 끝까지 올려 짧게 입고다니는 딸내미들을 보면서 항상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성인들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삶의 질을 길게 늘어트려 입을 경우 반바지 끄트머리를 가리게 되다 보니 하의를 입었는지 벗었는지 알 수가 없다. 성인 여성들이 이런 하의 실종 패션을 하고 다니자 종교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까지 짧아진 것이다. 특히 일부 종교생들의 교복 치마는 보기도 어려울 정도다. 학부모들은 치마든 반바지든 허벅지 끝을 입은 여학생들의 사진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또 카페에 올라온 사진에 달린 댓글 중에는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수위를 넘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하의 실종은 차치 성범죄의 타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탈선이나 범죄 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복을 규정해 단정하게 입도록 교칙을 정해서 강력하게 규제할 수는 없을까.

## 社說

##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장기임대로 가야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이 1년 3개월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박람회 폐막 후 정부가 선투자한 4846억 원 중 미상환액 3846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박람회장 매각에 나서면서 겉돌기 시작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내는 등 부산을 벗었지만 경기침체로 매수할 기업을 찾지 못해 박람회장이 실상 폐허화된 상태다.

전남도와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 지자체 및 지역민들이 박람회장 매각보다는 대기업에 장기임대 등을 통한 사후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아 당부는 여전히 투자금을 회수에 만 열을 올리고 있다. 사후활용방안이 10년간이나 방치되면서 이를 뿐으로 전략적 대전략으로 전철을 밟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재단 운영 및 시설 유지를 위해 연간 수백 억 원의 험세가 필요하지만 이미 재원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박람회를 계

기로 남해안 일대를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여수선언'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박람회장을 이런 식으로 사장시키는 것은 정부나 남해안권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매수할 기업이 없다고 그냥 방치하는 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날비를 뿐이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임대' 내지 '임대 후 매각' 등의 방법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국내 25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기업의 87%가 매수보다는 장기임대를 선호하고 있지 않는가.

정부는 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을 매각에서 임대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그게 바로 모두에게 상생의 길이자 여수박람회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 中어선 담보금 대납업 비리 소지 많는데

불법 중국 어선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국인의 담보금 대납업이 성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터무니 없이 높은 수수료에 단속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지만 관련 당국은 실태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포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 측 배 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 나포된 중국어선 가운데 124척이 부작용으로 드러났다. 중국어선들은 환전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해 조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고, 업자는 1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대납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납업자간 정보 경쟁도 치열하다고 한다. 불법조업 어선이 불법조업을 모두 대납업자로 낙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어선들은 환전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해 조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고, 업자는 1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대납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납업자간 정보 경쟁도 치열하다고 한다. 불법조업 어선이 불법조업을 모두 대납업자로 낙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어선들은 환전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해 조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고, 업자는 1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대납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